

장애인·비장애인 아름다운 동행 '포용 사회' 조성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2019년 서울·부산 등과 출범 전남·전북·제주지역까지 담당 법률 자문·복지·힐링콘서트 등 각종 활동 통해 권익 보호 앞장



올해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지역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위)과 업무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마음, 잇다' 프로그램.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더불어사는 사회'에 앞장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 한 해는 70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을 해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산하 기관으로 장애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출범했다.

그 후 2020년 8월 광주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6에서 개소식을 갖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더 나은 장애인 근로자에 편의 증진을 위해 북구 첨단연선로 281 11층(1110호)으로 자리를 옮겨 법률자문·심리치료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센터에는 쾌적한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해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문화 형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 결과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올해 ▲장애인 근로자 교육 상담 및 고충 해결 ▲노무법률 교육 ▲행복한동행 그대들을 위한 힐링콘서트 ▲수어 교실 ▲문화 복지 사업 '함께 봄' ▲상담사례집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힐링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 공연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이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교류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수어 교실도 진행해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초급·중급 수어 무료 교육을 통해 농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해 수요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CJ CGV와 업무협약을 통해 500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영화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6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상담사례집은 장애인 근로자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상담사와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로서 현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노무 상담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장애인근로자센터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업무환경 변화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찬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장

애인들이 단순한 공동작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근로활동을 하며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근무 중 불가피하게 생긴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센터의 역할로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 해소에 더욱 힘써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정찬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

“차별·편견 없애고 안정적 직장생활 돕겠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장 부임 후 4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소회는?

-부임 후 지난 4년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한 시간이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법률 상담, 심리 지원, 직업훈련 등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현장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 더욱 많은 분께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국에 서울·부산·대구·경기·대전 등에 센터가 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광주 센터의 차이점과 강점은?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남·전북·제주의 큰 범위를 관할하는 차이가 있고 농어촌의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여건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또한 광주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욱 폭넓은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주센터 운영에 있어 애로점은?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광주센터 운영의 가장 큰 난관은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 업무 환경, 나아가 일상적인 삶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역량을 축소

하고 그들이 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센터에서는 지역 기업,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올해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근로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먼저 '마음, 잇다'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 불안, 건강 관리 등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안정감을 높이고 근로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지역민에게 당부할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지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민들도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 /안태호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무료 드립니다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드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